



배우 박민영이 재산 축적 과정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4살 연상의 재력가와 열애설에 휩싸였다. 사진제공 | 스포츠동아DB

배우 박민영, '신흥 재력가'와 열애설, 그런데 그 남자가...

4살 연상의 '빳빳 숨겨진 주인' 설사기 등 연루...재산 축적 과정 의혹 소속사 "촬영 바빠...사실 확인 중"

배우 박민영(37)이 4세 연상 한 사업가와 열애설에 휩싸였다.

28일 한 온라인 매체는 두 사람이 고가의 수입차를 타고 데이트하며 함께 양가 가족을 만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이날 해당 매체는 박민영은 A씨가 살고 있는 서울 한남동 최고급 빌라에서 자주 출퇴근하고, A씨도 박민영이 어머

니와 함께 살고 있는 청담동 빌라를 오갈 정도로 "공식적인 연인사이"라고 보도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박민영의 연애 상대 남자가 "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빳빳'의 숨겨진 주인"이라고 주장하면서 A씨의 막대한 재산 축적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빳빳을 비롯해 코스닥 상장사 비덴트·비즈니스튜디오, 코스피 상장사 인바이오젠을 소유하면서 이와 관련해 인수자금 230억 원 출처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A씨는 4개사 회장 명함을 들고

다닌다"며 "상장사 3곳의 표면적인 대표는 A씨 친여동생이다. A씨는 휴대폰 장사를 했고, 2016년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동생은 액세서리를 팔았다. 2020년 빳빳과 상장사 3개 주인이 됐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인수자금 230억을 마련했는지 의문"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박민영의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날 "현재 드라마 '월수금화목토' 촬영 중이라 사실 확인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정확한 입장을 신속히 전달 드리지 못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이정재 기자 annjoy@donga.com

"코믹부담 없고, 솔직한 모습 보여주고, 추억도 쌓고"

대세 배우들, 여행예능으로 뭉쳤다

박보검 등 12명 '청춘MT' 세몰이 미국 유럽 동남아 OTT서 상위권 한예종 동문 여행프로 내달 첫 선 하정우·주지훈도 여행예능 촬영 중



배우 하정우(왼쪽)와 주지훈이 내년 방송 예정인 새 OTT 예능 콘텐츠에 동반 출연한다. 사진제공 | CJ ENM·스포츠동아DB

박보검·지창욱부터 하정우·주지훈까지...

그동안 예능프로그램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배우들이 '여행 콘텐츠'를 통해 뭉치고 있다.

이른바 '리얼리티'에 익숙하지 않은 배우들이 느끼는 부담감도 적을뿐더러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볼 수 없었던 솔직한 매력력을 선보일 수 있어 일석이조다.

티빙 오리지널 예능 '청춘MT'가 대표적이다. 한류 드라마인 '구르미 그린 달빛', '이태원 클라쓰', '안나라수마나라'에서 각각 주연한 박보검·김유정, 박서준·안보현, 지창욱·황인협 등 대세 배우 12명이 연합 MT를 떠난 콘셉트의 예능프

로그램이 9일 공개 후 티빙 인기 프로그램 순위 상위권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막강한 해외 팬덤을 이끌고 있는 배우들을 통해 글로벌한 반응을 이끌며 케이(K)예능의 한류 가능성까지 높였다. 콘텐츠는 싱가포르, 홍콩,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에 서비스되는 글로벌 OTT(온

라인 동영상 서비스 뷰(Viu)에서도 공개돼 전체 콘텐츠 순위 톱 10위에 안착했고 미주, 유럽 오세아니아 등에서 서비스되는 또 다른 OTT인 라쿠텐 비키(Rakuten Viki)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연출을 맡은 정종찬 PD는 "연기로 호흡했던 배우들이 '자연인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케미스트리가 각 드라마 팬들에게는 특별한 팬서비스로, 드라마를 보지 않은 시청자들에게는 배우들의 관계성을 엿보게 하는 색다른 재미로 다가간 것 같다"고 말했다.

'청춘MT'에 앞서 방탄소년단 멤버 뷔와 최우식·박서준·박형식과 함께 한 힐링 여행기 '인더숲: 우정여행'도 7월 디즈니플러스를 통해 해외 팬들을 열광시켰고 유해진·진선규·박지환·윤균상의 유럽 여행을 담은 tvN '텐트 밖은 유럽'은 호평 속에 최고 시청률 5%를 넘었다.

'신상' 여행 예능들도 준비 중이다. 이규형·이상아·이유영·임지연·차서원·엑소 수호 등 한국예술종합학교 동문 배

우들의 호주 여행 모습을 담은 SBS '딱 한번 간다면'이 10월 첫 방송한다.

영화 '신과함께' 시리즈와 내년 개봉하는 '피랍'에서 호흡한 하정우와 주지훈도 사이니 민호·여진구와 함께 새로운 여행 예능을 위해 뉴질랜드로 떠났다. 현재 OTT 편성을 논의 중이며 내년 방송 예정이다.

정 PD는 배우들이 여행 예능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예능에 익숙하지 않은 배우들도 여행이라는 편안한 콘셉트 안에서는 말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는 볼 수 없었던 더욱 인간적이고 친근한 매력도 보여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배우 소속사 관계자는 "일반 버라이어티나 토크쇼보다 '웃겨야 한다'는 부담감이 적은 게 사실"이라며 "대부분 여행 예능은 친한 배우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더욱 편할 뿐만 아니라 함께 추억을 쌓는다는 의미도 크다"고 말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배우 남궁민·진아름 내달 7일 비공개 결혼



남궁민 진아름

배우 남궁민이 모델 출신 배우 진아름과 10월 7일 결혼한다. 남궁민의 소속사 935엔터테인먼트는 28일 "남궁민이 오랜 연인 진아름과 든든한 동반

자로서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결혼식은 친인척과 지인들만 초대해 서울 신라호텔에서 비공개로 진행한다. 두 사람은 2015년 교제를 시작해 이듬해부터 언론에 공개했다. 2001년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로 데뷔한 남궁민은 2017년 KBS 드라마 '김과장'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이후 드라마 '스토브리그', '검은태양' 등으로 인기를 끌었고, 현재 SBS '천원짜리 변호사'에 출연 중이다.

돈스파이크 "마약 혐의 인정...심려 끼쳐 죄송"



돈스파이크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김민수·45)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검사)에 출석한 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1시께 서울 북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돈스파이크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한다"며 "다 제 잘못이고 조사에 성실히 임해서 죄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마약 투약을 시작한 시점에 관한 질문에는 "최근"이라고 짧게 답했다. 돈스파이크는 강남 일대에서 지인들과 호텔을 빌려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6일 오후 8시께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영장을 집행했다.

'마약 의혹' 남태현·서민재 모발 등 국과수 의뢰



남태현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남태현과 서민재의 모발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2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을 최근 소환해 국과수 감정을 위한 소변과 모발을 채취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가 두 사람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서민재는 지난달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남태현 필로폰 함. 제 방과 회사 캐비닛에 쓴 주사기가 있다"고 글을 써 파문을 일으켰다. 이를 본 누리꾼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BTS 멤버 지민 강원교육청에 장학금 1억 쾌척



지민

그를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이 강원지역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 1억 원을 기탁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8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지민은 이달 초 강원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강원교육 장학학회에 장학금을 전달했다. 지민은 도교육청에 기부 사실을 비밀로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민은 앞서 전남·부산 교육청을 비롯해 소아마비 환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에 꾸준한 기부를 이어가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런던영화제서 주연작 모아 '이정재 특별전'



이정재

배우 이정재의 특별전이 영국에서 개최된다. 제7회 런던아시아영화제 측은 28일 "이정재의 1994년 데뷔작 '젊은 남자'부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하녀', '신세계', '헌트'까지 주요 작품들을 모아 특별전을 한다"고 밝혔다. 이정재가 주연하고 감독한 '헌트'는 개막작으로 선정됐다. 다음 달 19일 개막식 전 런던 중심가 레스터스퀘어에서 개최되는 레드카펫 행사에는 이정재와 함께 '오마주'의 이정은, '비상선언'의 임시완도 참석한다. 이들은 영화 상영 후 관객과 대화도 할 예정이다.

"작품 다 찍어놓고 사고치네"...주연배우 리스크 어찌하오리까

'음주' 광도원 계기 대안 목소리 '소방관' 등 촬영 끝나 전전공공 "계약때 손해배상 조항 포함해야"



광도원

배우 광도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면서 차기작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빌런즈'와 영화 '소방관'이 직격탄을 맞았다. 주연으로 나서 촬영까지 모두 마친 만큼 배우 교체나 출연 분량 편집 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연예계 안팎에서는 작품을 책임지는 주연배우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울만한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는 의견도 나온다. 광도원은 앞서 25일 제주에서 촬영일코 율농도 0.158% 수치의 만취상태로 적발됐다. 이로 인해 내년 공개 예정이었던 주연작 '빌런즈'와 '소방관'의 공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특히 '소방관'은 2020년 8월 촬영을 마치고 감염증 사태 여파로 2년째 개봉을 기다리고 있던 터라 상황이 더 심각하다. 두 작품의 제작진 측은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누리꾼들은 "광도원이 나오는 작품은 보지 않겠다"며 냉정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6명의 소방관이 안타깝게 희생된 2001년 화재동 화재사건을 모티브로 한 '소방관'에서의 의로운 소방관 역할을 맡은 광도원에게 불입하기 쉽지 않아서다. 하지만 촬영을 끝내고 후반 작업 중인 두 작품 역시 새 배우를 캐스팅해 재촬영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배우에게 주연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게 할 구체적인 확실한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28일 배우의 출연 계약서에 작품의 이미지를 타격을 줄 만한 행동을 금하는 등의 조항을 언급하는 할리우드 예로 들었다.

정 평론가는 "배우가 작품 공개 전 범죄에 연루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후속 조치에 필요한 금액을 책임지게 하는 등의 강력한 손해배상 관련 조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공적 가치를 다루는 작품일수록 작품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없게 하는 사전 조치가 더욱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일본 초히트 드라마 줄줄이 한국 온다

'언내추럴' 리메이크 판권 계약 '사랑한다고 말해줘' 연말 촬영 '방승가 지적재산권 경쟁 때문'

일본에서 신드롬급 인기를 끈 드라마 '언내추럴'과 '사랑한다고 말해줘'가 국내에서 리메이크된다. 최근 1%대로 종영한 SBS '오늘의 웹툰' 등 2018년 이후 일본 드라마를 원작삼은 작품들이 잇따라 저조한 시청률을 거둔 상황에서 잇달아 시도되는 일본 드라마 리메이크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 지상파 채널 TBS에서 2018년 방영한 '언내추럴'은 법의학자들이 다양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가는 이야기를 담는다. 방영 당시 일본의 유명 시사잡지 '더 텔레비전 드라마 아카데미상'에서 여우주연상 등 6관왕에 오를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국내에서도 탄탄한 팬덤을 보유한 26일 드라마 제작사 비웨이브엔터테인먼트와 네오스토리가 리메이크한다고 밝히자 이들 후 28일까지 각종 SNS 트렌드 검색어에 드라마 이름이 오를 만큼 화제를 모았다.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왓츠 측은 "26일 이후 평균 대비 3~5배 시청시간이

급증해 27일 '톱10'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높은 화제성을 확인한 제작사는 각색 작업을 마치는 대로 주인공 캐스팅에 돌입하는 등 제작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사랑한다고 말해줘'는 연말 촬영을 시작한다. 스튜디오앤뉴와 정우성이 대표로 있는 아트스트уди오가 공동 제작한다. 1995년 TBS에서 방영한 원작은 청각장애인 화가와 배우 지망생의 로맨스를 그려 28%대 시청률을 기록했다. 정우성은 제작에 힘을 싣고자 일찌감치 주인공을 맡아 10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하고, 신현빈이 그와 주연 호흡을 맞춘다.

이처럼 일본 대작들의 리메이크 시도는 최근 플랫폼이 다양해지면서 방승가에 불거진 지적재산권(IP) 발굴 경쟁과 맞닿아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2010년대까지 성행한 일본 드라마의 리메이크는 2019년 J TBC '리갈하이', SBS '절대그이' 등이 연달아 시청률 흥행에 실패하면서 지난해에는 한 편도 리메이크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IP 선점 경쟁이 심화되자 일부 제작사가 과거 히트작을 다시 불사하기 시작했다. 특히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두터운 팬덤이 형성돼 화제몰이가 용이한 의학, 로맨스 장르를 주목하고 있다. '언내추럴'을 만드는 남현지 네오스토리 대표는 28일 "뛰어난 작품성을 갖춘 데다 우리나라에서 잘 만들 수 있고, 지금까지 좋은 작품이 많이 나온 의학 장르라는 점 때문에 리메이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